

출장보고서
2018.5.8. - 5.12.
네팔

**KDI-아시아재단 공동주최
2018 AADC 저자회의 출장보고서**

2018. 5.

1 출장 배경

- KDI와 아시아재단은 아태지역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12월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법’ 공동연구사업 MOU를 체결하였음. 이후 매년 MOU를 갱신하여 Amending MOU를 기반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 2017년부터는 공동연구 계약으로 전환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동연구를 할 예정
- 2017년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한 프로젝트 완료 후, 2018년에는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자회의 참석 및 현안 논의를 위해 본 출장을 기획함.

2 출장 계획

목적

- ‘개발협력의 아시아적 접근법: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지원(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Supporting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컨퍼런스 참석
 - 본 회의에는 KDI 및 아시아재단 관계자와 분쟁·갈등관리·평화구축 분야의 국제기구, 정부 및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

일정: 2018. 5. 8.(화) ~ 5. 12.(토), 출·입국일 포함

방문지: 네팔 카트만두

출장자

소속	성명	직위	출장기간
KDI	임원혁	글로벌경제연구실장	5.8.(화)~5.12.(토)
	윤혜민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③ 세부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5.8. (화)	13:30~17:50	인천 출발 - 카트만두 도착(임원혁, 윤혜민)	KE 695
5.9. (수)	09:00~17:00	2018 AADC 저자회의 1일차 - 개회식 및 환영사 - 세션 1 : 평화구축 지원 - 세션 2 : 경제발전을 통한 평화 및 안보 제고 - 세션 3 : 분쟁 방지를 위한 지식 공유 - 세션 4 : 네팔 사례: 중재를 통한 평화구축	
	18:00~20:00	리셉션 및 환영 만찬	
5.10. (목)	09:00~12:30	2018 AADC 저자회의 2일차 - 세션 5 : 정부 역량강화 - 세션 6 : 다자간 협력에 대한 논의	
	12:30~17:30	점심 및 Field Trip	
5.11. (금)	19:40~	카트만두 출발(임원혁, 윤혜민)	KE 696
5.12. (토)	~05:00	인천 도착(임원혁, 윤혜민)	

4 회의 내용

(1) 2018 AADC 회의 '개발협력의 아시아적 접근법: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지원'

- Fermin Adriano 박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점에서 회의 주제를 소개하고 동 국가 간의 협력 증대를 강조함.
-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고 내전보다는 국가 내 분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분쟁 해결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미 ASEAN 등의 기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NGO와의 협업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과 같은 새로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유사한 분쟁 상황을 경험한 국가들 간의 남남협력도 증가하였음.



<2018 AADC 저자회의 참가자 단체사진>

<세션 1: 평화구축 지원>

- 아시아 국가들이 파트너 국가의 평화구축 지원 방안 및 이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세션 1에서는 남·북한 평화구축 역사와 시사점, 파키스탄의 평화구축 접근 방법, 일본 JICA와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지원 사례가 소개됨.
- 문경연 전북대 교수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의 안보와 북한의 개방에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이 컸으나, 원조가 핵무기 개발에도 사용된 것과 같이 인도적 지원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언급함. 신뢰와

상호의존이 바탕이 되어야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제언함.

-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일본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그와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에도 참여하고 있음.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 난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 탈레반과의 화해 과정 지원 등이 있으며, 서남아시아 지역 내 외교에도 힘쓰고 있음. Simbal Khan 박사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한 지역 연결을 위해 파키스탄과 인도의 정치적 합의 및 협력이 중요함을 제기함.
- 일본 정부는 분쟁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2015년 네팔 지진 이후 JICA는 인프라 재건과 공공 거버넌스 및 사법부의 현대화를 지원하며 네팔의 빈곤율 감소에 기여했음.
- 또한,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개인 간의 교류와 지역 특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화구축을 도모하며 “비전통적 안전 보장(non-traditional security)” 접근법을 시행하고 있음. 과거 일본 NGO들은 각종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평화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원도 증대되고 있음.

<세션 2: 경제발전을 통한 평화 및 안보 제고>

- 본 세션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경제 인프라, 무역 정책이 지역 내 평화를 도모하고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경제 발전이 기존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함.
- 통상 경제발전과 평화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아재단의 Adrian Morel 사업담당관은 아시아 국가들의 예를 들며 반대의 가설을 제시함. 급격한 도시화, 토지 취득, 국가 내 다양한 사회·경제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 및 법제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함.
- Ying Huang 박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 BRI)과 5가지의 핵심 원칙(정책 조정, 시설 연계, 무역 원활화, 금융통합, P2P 교류)을 소개함. 중국이 BRI를 통해 경제·사회적 교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 유지와 중재국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것을 제안함.
- Nazir Kabiri 아프간 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내전이 아닌 탈레반이 주도한 분쟁이며, 테러리즘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역설함.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개발원조에 앞서 분쟁 등 국가의 특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공동사업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세션 3: 분쟁 방지를 위한 지식 공유>

- 세션 3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구축 경험을 타국과 공유한 사례를 다룸.
 -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는 족자카르타의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소개하며 지역 내 여성,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 및 집단 간의 갈등관리를 통해 주민합의에 이르렀음을 언급함.
 - Lina Alexandra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아체(Aceh)주 평화구축 과정을 바탕으로 타국과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에 있어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방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중재자와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세션 4: 네팔 사례: 중재를 통한 평화구축>

- 본 세션에서는 아시아재단 네팔지부와 일본 JICA의 네팔 지역주민 갈등관리 및 중재 사업이 소개됨.
 - 사범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한부여(empowerment)를 실현하기 위해 네팔에서는 여러 시민 중재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아시아재단 네팔지부는 2002년부터 21개 지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및 금융 문제, 명예 훼손, 가정폭력, 지역자원을 둘러싼 분쟁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됨.
 - 네팔에는 39개의 지역에 900개가 넘는 지역중재센터가 있으며, Kenichi Tanaka JICA 수석 고문관은 이러한 주민 중재사업이 지역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과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고 설명함.

<만찬사>

- Vidyadhar Mallik 네팔 평화이행연구원(Nepal Transition to Peace Institute) 원장은 네팔의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지난 70년간의 투쟁과 역사,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하여 발제함.
 -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역사적 배경(예: 카스트 제도)과 개발 경험 등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음. 특히 네팔은 인도와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데, 인도와는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고 유사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양국은 모두 네팔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함. 네팔은 국내 정치 및 경제를 안정시켜 자립과 대외의존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성이 있음.

<세션 5: 정부 역량강화>

-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세션 5에서는 필리핀, 미얀마, 인도의 사례가 소개됨.
 - 필리핀 라나오델수르(Lanao del Sur)주의 평화구축에 있어서 Abedin Sanguila

사령관이 개발 원조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과 청년 및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한 것이 주효했음.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조가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의 핵심임.

- 미얀마는 70년 이상 다양한 민족·공산주의 반란군들이 국가를 장악하면서 국경지역이 전략의 요충지가 되었고, 미얀마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과 태국의 국경정책이 반란군 세력에 큰 영향을 미쳤음. Min Zaw Oo 박사는 특히 무기조달과 시장선점이 중요하며, 태국이 1990년대부터 무기 밀수입을 단속함으로써 반군 세력이 약화되고 휴전 협상에 이르렀다고 설명함. 반면, 중국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평화 지원이 필요함.
- 인도의 평화구축 정책은 중재와 조언이 핵심으로, 수동적인 입장인 듯하지만 최근 인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아시아지역의 평화 도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역량 강화를 지원함.

<세션 6: 다자간 협력에 대한 논의>

- 마지막 세션에서는 분쟁방지와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의 Denis Nkala 박사는 UN이 제3세계가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UNOSSC가 현재 동 분야 지식 공유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림.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SARC) 국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조직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함.
 - 평화구축 분야의 연구와 남남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조정연구소(ASEAN-IPR)가 2011년에 설립되었음.
 - Bishnu Sapkota FHI 360 네팔지부장은 SSARC가 지정학적 민감성과 조직의 힘이 부족하여 평화구축에 있어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
- 분쟁의 선부른 개입은 이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및 협력 국가들은 단합된 행동을 해야 함. 호주 외무부 Nick Smith 과장은 선진공여국들이 재원은 풍부한 반면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해 평화구축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아시아 국가들과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조직들이 협력하여 평화구축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
 - Sapkota 박사는 정부와 달리 지역사회와 가깝게 협력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
- Rezlan Jenie 대사는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Nick Smith 과장이 호주 외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 평화 지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언급함.

- 임원혁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폐회사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평화론을 언급함. 칸트는 평화가 아닌 전쟁이 인류의 자연 상태라고 주장했으며,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1) 정부의 일관성과 국제 거버넌스 2) 자유국가의 연방체제에 기초한 국제관계, 3) 보편적인 인권을 바탕으로 한 개인 및 국제사회에 대한 존중. 임원혁 실장은 장기적인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이 중 보편적인 인권의 실현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함.

<Field Trip: 지역중재센터 방문>

- 2015년 지진 이후 구호 및 마을재건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위해 아시아재단 네팔지부는 네팔 지역사회의 협상과 중재(mediation)를 지원하고 있음. 본 출장에서는 Kavre 지역 바네파시(Banepa Municipality)의 마을중재센터에 방문하여 중재자들과 면담함.
 - 바네파시에서 현재까지 300건 이상의 개인 및 마을 간 분쟁 사건을 다룸.
 - 토지 및 자연자원에 대한 문제가 주요 분쟁 이슈
 - 예: 도로 확장에 의해 주거지 등 마을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와 기간 및 보상에 대한 협상을 타결. 기존 법체계(법원)를 통한 방식보다 해결 속도가 빠름.



<마을 중재자 및 사업담당자>



<바네파시 지역중재센터>

(2) KDI-아시아재단 AADC 공동연구사업 논의

- 회의 참석자: Dylan Davis 대표, Anthea Mulaka 국장, 이경숙 사업본부장(이상 아시아재단), 임원혁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윤혜민 연구원(이상 KDI)
- 2018년도 공동연구사업 향후 일정
 - 본 카트만두 회의를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명 내외의 저자를 선정하여 8~9개의 챕터 집필 추진

-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북한) 사례 등
- TAF 네팔 사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나 네팔 분쟁(만찬사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챕터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
- 저자 확정 후 10~11월 초 중으로 서울 워크숍 개최 예정

○ 2019년도 공동연구사업 주제 논의

① 인도적 대응(humanitarian responses)

- 인재 vs. 자연재해
 - 인재에 대한 논의는 올해 주제(난민, IDP 등)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Gordon Hein 아시아재단 부총재가 내년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올해는 난민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자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함).
 -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아시아적 접근법을 논하기에는 기존 서양 국가들의 대응 방법과 큰 차별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외에도 비정부기구 및 기관의 활동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음(2016년에 NGO와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접근법에 대해 다루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세부 주제가 없었음).
- 회의 개최 후보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② 에너지·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 본 주제는 아시아재단의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13년도 AADC 회의가 기후변화를 주제로 진행되긴 했으나 그 이후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다양해지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내용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대체에너지, 물관리, 대기질 오염에 대한 대응 및 협력방안을 세부 안건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
- 회의 개최 후보지: 방글라데시, 라오스

③ 보건

- AADC 회의에서는 한 번도 다룬 적 없는 주제로 보건은 그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염병, 비전염병, 모자보건 등 세부 주제를 정하여 논의해야 함.
-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에서 매해 이화여대와 함께 보건 관련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그 중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위생키트에 관한 아이디어 등 혁신적인 프로젝트 내용이 있었음.